북스

Books

승려첩자 도림, 백제를 무너뜨리다

역사를 훔친 첩자 김영수 지음

부부간첩 호동왕자·낙랑공주
첩보전의 달인 김유신 장군
삼국 첩자들 종횡무진 활약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으뜸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금언이다.

동양에서는 '지피(知彼)'의 전략으로 첩자(諜者)를 애용했다. 이른바 서양의 '스파이'로 불리는 첩자의 역사는 중국의 경우 4천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몽', '연개소문', '대조영' 등 현재 TV드라마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3국 시대가 첩자, 첩보전의 전성기다.

3국 가운데 첩자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나라는 고구려다. 흔히 알고 있는 고구려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사례는 혼인관계로 맺어진 최초의 부부간첩 이야기다.

호동왕자는 "'자명고(自鳴鼓)'를 부술 경우 아내로 맞이해 데려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예비 아내의 이적행위를 부추겨 낙랑을 함락한다.

'역사를 훔친 첩자'는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적진에 들어가 눈부시게 활약했으면서도 영웅들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첩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한·중 고대사를 전공한 뒤 13년 동안 첩자문제를 연구해온 저자 김영수씨는 이 책에서 한국 고대사에서 실존했던 첩자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이들을 고스란히 그려내고 있다.

첩자로 적진까지 들어갔던 고구려의 을지문덕, '첩보전의 달인' 신라의 김유신 장군, 김춘추를 무너뜨린 백제의 모척 등은 3국 시대 대표적인 첩자들이다.

벽제를 멸망으로 이끈 도림은 승려첩자다. 도림은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 도망한 것 처럼 꾸며 백제로 건너와 개로왕에게 접근했다. 그는 개로왕의 취미인 바둑으로 환심을 산 뒤 궁실, 성 등 대형공사를 부추겨 백제의 국력을 소진, 백제를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냈다.

이 같은 첩보전의 교과서는 손자병법이었다. 이 책의 '용간' 편에서는 첩자의 종류를 구분한 뒤 '반간(反間)'을 으뜸으로 친다. 현대적 의미로는 이중간첩이다.

반간을 이용한 '반간계(反間計)'의 대표적인 사례는 '삼국지'의 하이라이트인 적벽대전이다.

주유의 부하인 황개는 조조에게 위장자수한 뒤 적진 깊숙이 들어가 맹렬한 화공(火攻)을 퍼부음으로써 강풍에 흔들리는 배들을 결박했던 조조 진영을 잿더미로 만든다.

저자는 "첩보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경우 연개소문 사망 후 아들들이 권력암투를 위해 상호첩보전을 벌이면서 국운이 기울었다"며 "첩보전이 적을 향하지 않고 내부를 향할 때 권력자의 몰락은 물론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 책의 교훈이다"고 설명한다. 〈김영사·9천9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고구려 첩자이자 승려인 도림의 계략에 말려 나라를 잃은 백제 개로왕이 최후를 맞은 아차산성

▶ 첩보전을 통해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무찌른 을지문덕의 활약상을 그린 '살수대첩' 상상도.

666은 왜 짐승의 수인가?

수의 신비 마르크 알랭 우아크냉 지음

너무 흔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공기나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산다. 공기나 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도 말이다. '숫자'는 어떤가. 날짜를 헤아리거나 돈을 셀 때, 전화번호·주소·나이 등 숫자는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등장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는 어디서 왔을까.

'수의 신비'는 숫자는 어떻게 태어나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랍비이자 철학박사인 저자 마르크 알랭 우아크냉은 서양 장기 체스에 관한 흥미로운 전설을 들려준다. 6~7세기 경 한 스승이 체스를 발명하자, 왕은 그에게 선물을 주겠노라고 한다. 스승은 "체스의 첫 번째 칸에 밀알 1알을, 다음 칸에 2알을, 그 다음 칸에 4알을…"과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체스판을 밀알로 채우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왕은 너무 조그만 소원이라 생각했지만, 수학자를 불러 계산해 본 결과 체스판에 그려진 64개의 칸을 다 채우는 데 필요한 밀알은 자그만치 18,446,744,073,709,551,615개였다. 지구의 73배에 해당하는 넓이에 씨를 뿌려야 얻을 수 있는 양이다. 이 전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6~7세기 인도에서 십진법과 대수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수와 숫자가 갖는 수학적 의미 뿐 아니라, 그 역사적·상징적·종교적인 의미까지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책은 근대 숫자의 탄생과 변천을 다룬 1부와 다양한 수의 세계를 보여주는 2·3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문헌 등의 자료 비교를 통해 근대 숫자가 탄생하는 기나긴 과정을 보여주고, 2·3부는 '완전수', '황금수', '마법진' 등을 소개한다.

바빌로니아, 이집트, 마야, 히브리 등 고대 문명인들은 각자의 명수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우리는 지금 '0, 1, 2, 3, 4, 5, 6, 7, 8, 9'라는 명수법을 따르고 있을까? 0은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6은 왜 완전수이며, 666은 왜 짐승의 수인가? 원주율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얼마까지 계산됐을까? 등 수와 관련된 수수께끼들을 풀 수 있다. 수학용어 등으로 인해 딱딱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책의 곳곳에 배치된 흥미로운 수 이야기가 암호를 푸는 듯한 즐거움과 함께 수의 세계에 대한 지적 체험을 선사한다. 〈살림·1만8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출판평론가 한기호씨 칼럼·자서전 잇단 발간

출판평론가 한기호씨가 칼럼집과 자서전을 잇따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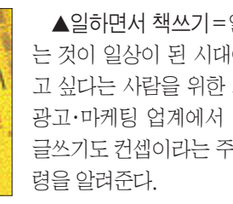
'디지로그 시대 책의 방향'(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펴냄)을 통해 저자는 출판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도 '종이 책의 종말론'을 말하기보다 새로운 책의 시대에 대한 활로를 모색한다.

'열정시대'(교양인 펴냄)는 1982년 편집자로 출판계에 첫 발을 내디딘 저자가 책의 부흥시대이던 80년대를 지나 출판산업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지내왔던 25년 출판인생을 담고 있다. '소설 동의보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등 저자의 손때가 묻은 베스트셀러의 뒷 이야기가 눈물겹다. 〈각 권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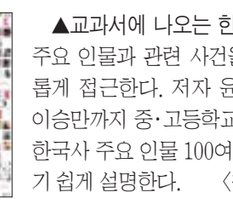
/정상필기자 camus@

▲사람풍경=소설가 김형경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느꼈던 점들을 담은 심리 여행 에세이다. 저자가 로마, 피렌체, 밀라노, 파리, 베이징 등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통해 내면을 성찰한 글로 다시 출간됐다. 〈예담·1만1천원〉

▲도플갱어=199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이자 20세기 세계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대상을 가리킨 '도플갱어'라는 소재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 질문부터 인간과 사회, 문명을 통찰력있게 짚어낸다. 〈해냄·1만3천원〉



▲일하면서 책쓰기=일기, 블로그 등 글쓰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에 한 번쯤 '책'을 쓰고 싶다는 사람을 위한 지침서다. 오랜 시간 광고·마케팅 업계에서 일해온 탁정언 씨가 글쓰기도 컨셉이라는 주제로 좋은 글쓰기 요령을 알려준다. 〈살림·1만원〉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주요 인물과 관련 사건을 통해 역사에 흥미롭게 접근한다. 저자 윤희진씨는 단군부터 이승만까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국사 주요 인물 100여 명을 시대순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책과함께·1만8천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한글=갈수록 한글 파괴가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 한글 소개서다. 저자 김미경 교수는 한글이 갖고 있는 미학적 우수성과 IT 등 콘텐츠 산업에서 한글이 갖는 잠재력을 살펴보며 한글을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한다. 〈자우출판사·9천원〉

▲독서경영=독서경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은 책. 안철수연구소, 현대 오일뱅크, 코리아나 화장품 등 '독서'를 통해 업무 향상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감을 높인 회사들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한다. 〈위즈덤하우스·1만3천원〉

▲인경(忍經)=원나라 중기의 사상가인 허명규가 지은 '권인백잠'을 토대로 인내에 관한 잠언 100가지와 이와 관련한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엮어냈다. 인내를 단순히 꾹 눌러 참는 비겁과 무능이 아닌 매우 높은 마음의 수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신원·1만6천원〉

▲길위의 생=일본의 '국민작가'로 불리는 나쓰메 소세키 최후의 장편소설이다.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은 인간의 모자람과 부조리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놓지 않는다. 〈이레·1만2천원〉

▲왕비 재테크=주부 권선영씨가 공개하는 왕비되는 비법으로 저자의 치열한 투자 경험을 정리한 책이다. 2천900만원짜리 전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 10년만에 10억의 자산을 일궈내고 '왕비'로 거듭난 저자의 재테크 비법을 공개한다. 〈길벗·9천800원〉